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6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2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2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2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2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불출석하고 농림수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참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라. 해양경찰청 소관

2.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3.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4.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5.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15시08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옥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송옥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송옥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9739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97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 10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000억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으로 671억 8100만 원을, 사료산업 종합 지원 예산으로 500억 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으로 400억 원을, 농업용 비닐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으로 154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 예산 706억 3000만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예산 70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081억 7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

해 10개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지원에 필요한 이차보전 지원액 32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가 부담 완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에 221억 원을,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을 위하여 7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사업에 415억 4600만 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인상분 지원 사업에 78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항만물류 기업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항만물류 비상 대응 지원 사업에 104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국적선박 피해 지원을 위해 국적선박 피해 긴급 지원 사업에 1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378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소외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를 위한 청년산림재난대응단 사업에 210억 3200만 원, 임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에 8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정 유류구입 사업에 3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송옥주 위원장님 또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먼저 우리 소위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기보다는 유통업체 배 불리기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정부가 올린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예산의 문제점들은 위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예산을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농축산물 할인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농림부차관님, 이번 소위 과정 거치면서 한 6000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차관님 보시기에 증액된 항목과 금액 중에서 반드시 지킬 수 있다, 합리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현장 상황의 설명을 통해

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을 설득하고 정부 측을 설득해서 지켜 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하신다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이만희 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1·2쪽에 있는 농촌국의 사업은 저희들이 좀……

○윤준병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2쪽에 있는 농촌 관련된 사업은 저희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농업용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적극적으로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면세유 부분 또 농업용 비닐 부분 또 무기질 비료, 전기요금 이 정도는 반드시 일부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차관님, 이번 추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가지 설명도 제가 아침에 물류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호르무즈해협과 관련돼 있는 해운선사 지원을 위한 예산 148억 원에 대해서는 꼭 좀 지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꼭 약속을 좀 지켜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결소위에서 우리 차관님들께서 잘 방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차관님, 8쪽의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추경안에 지금 706억이 담긴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706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담으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10개 군이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현재 10개 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 시범사업으로 10개 군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거기에다 3개 군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리고 정부안에 5개 군을 추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선교 위원 15개 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5개 군 추가하는 걸로 돼 있고. 오전에 소위에서 5개

군을 추가해서 추가 10개 군이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결소위에서 방어할 자신 있어요?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하게 올려야 되지.

○**김선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군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중구** 아마 예산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농수산물 할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 소득도 마찬가지로 예결소위에서 잘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야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크게 반대하지 않겠지만 우리 두 차관님들 특별히 예결소위에서 예결소위 위원님들 정말 잘 설득하셔서 가지고 증액한 모든 부분들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이만희 위원**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대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반대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위에서의 입장이 충분히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소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어기구** 소위에서 다 마무리를 지어 망치를 두드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삭감하고 그러는 것은 좀……

○**전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회의록에 담아서 저희들이 예결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니까요.

○**임미애 위원** 위원님, 예결위…… 아니에요?

○**전종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상임위……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예결소위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전종덕 위원님도 예결위……

○**위원장 어기구** 예결소위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잘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상임위 심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상임위 심사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기가 있었으면 여기서 토론을 해서…… 소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어도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으면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 누가 참석했나요? 여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소위 때 다 얘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700억 증액한다고 정부안이…… 지금 추경안은 500억 플러스 700억인데 이 예산의 규모는 작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계속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그동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예산은 45%로 줄였고요, 중소 유통 경로를 55%로 확대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형 유통업체 부분은 더 비중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JP모건에 따르면 당장 5월부터 우리나라 물가가 한 3% 정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가 위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농산물이 좀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어기구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지난 2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평가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오히려 농어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이번 추경의 의미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대기업 유통이나 중소기업 유통이나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평가대로 해야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오전 예산소위 때 관련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소비 촉진 관련한 예산 그것을 우리가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증액을 못 시킨 게 아니고 오전에 직접 지원 예산은 충분히 증액을 했습니다. 전기료 예산, 경유 예산도 다 증액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삭감해서 다른 쪽 직접 지원 예산으로 할 요인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부대의견에도 달았습니다만 우리 전통시장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셔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조승환 위원 700억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논의가 됐었다기보다는 예결소위에서는 이 예산 자체의 효과성이라든지 이 예산이…… 제가 농림부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수부 예산에 관해서 충분히 동일 성격의 예산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전종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농림부와 수산부가 농어민이 정책 고객 대상인지 일반 소비자가 정책 고객 대상인지, 농어민이 1차 정책 고객 대상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 농어민한테 갈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연 맞지 않다. 예산을, 정부안 자체를 농림부 500억, 해수

부 300억, 800억 받아 추경에 올리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실 것을, 검토를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이번 추경의 취지에 비취도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 예산으로 늘리는 게 맞고요. 지금 문금주 위원님께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직접 지원 예산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올라온 농식품부의 안 자체가 충분하게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0억 깎아서 충분히 직접 지원 예산을, 무기질 비료든 사료든 농사용 비닐이든 면세유든 더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으로 더 증액하는 것이 추경 취지에도 맞고 우리 농민들에게 어려운 이 시기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정이 가능합니까, 여기서? 아니면 전종덕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면 어떨까요, 그 의견을 달아서?

○전종덕 위원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문제 제기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 예산을 세워 줘 버리면 그것 그대로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 용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깎아야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지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예결위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또 예결위 소위 위원님이시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저는 소위 위원 아닌데요. 소위, 저는 안 시켜 줍니다.

○문금주 위원 예결위에서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의견을 충분히 담아 보내겠습니다. 소수의견 달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담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종덕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가 추경 같은 것 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짜는지 저도 가끔 가다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기고 있던 게 빠지고……

○조승환 위원 보이지 않는 손……

○위원장 어기구 이게 누구 오더를 받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소위 가서, 예결위에 가서 잘 설명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저희들이 좀 미싱(missing) 한 게 있어서……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부대의견 12번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도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융자 금리를 1.8%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렇게 의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인하한다’ 문구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아마 이게 예결위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여기서 인하한다고 되면 좀 어려운, 우려가 있어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그 정도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

서삼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서삼석 위원** 예산하고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라서 의결한 다음에……

○**위원장 어기구** 다 끝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서삼석 위원** 예, 의결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예, 1분 하십시오.

○**전종덕 위원** 저는 이 예산이 2년 연속 문제 제기가 되었던, 국정감사 때 문제되었던 예산이고, 문제 제기되었던 예산이 오히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돼 버린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부대의견을 아무리 훌륭하게 달아도 그건 부대의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은 우리가 700억을 증액시켜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물으시든지 아니면 만장일치로 하실 거면 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임호선 위원** 마음을 모아 가시지요. 어차피 저희 표결이 큰 의미가 없어요. 예결위 가면 거기서 다시 논의……

○**서삼석 위원**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속기록에.

○**위원장 어기구** 표결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종덕 위원** 이렇게 제기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똑같이 올라온다니까요.

○**임호선 위원** 아니, 저도 똑같은 의견 제기했어요, 소위 때.

○**위원장 어기구** 전종덕 위원님은 반대 의견 하신 걸로 하고 표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표결 안 하실 거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냥 같이 하세요. 어차피 예결위 가서 논의 다 되는 데 뭐.

○**위원장 어기구** 그래요. 그러시면 예결위 가서 상의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호선 위원** 그래요. 표결까지는 가지 말고.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 등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해양수산부차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해양경찰청 차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건, 산림청 소관 2건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결심사소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 관련한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그것까지 듣고 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결산심사소

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식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박은식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산림정책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송옥주 예산결산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액 의결해 주신 유류비 예산을 토대로 해양경찰은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은 해양경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서삼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인지 의견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관련된 법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식량안보법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윤준병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 법안을 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정부안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를 좀 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소위원장님·간사님께서도 이 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단 유류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문제도 유류 문제 못지않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근래 들어서 여러 언론들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여기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동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식량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적어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전쟁 예산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부에서 식량안보법 제정과 관련된,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대책들을 서둘러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19년부터 열여섯 차례 이상 이런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런 것. 그냥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쌀값 보장이 식량안보다. 쌀 5000만 국민 주식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이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요지부동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식량안보법 서둘러서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식량안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삼석 위원 정부도 진짜 분발하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식량안보법, 정부 또 우리 위원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선교 문금주 박준태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정태 조승환 주철현

○청가 위원(1인)

이원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현중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농업정책관 윤원섭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관 이재식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정책기획관 이상호

수산정책관 양영진

산림청

청장 박은식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이상익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장비기술국장 이원재